

헝가리 김흥근 선교사님, 2021년 봄

아틀란타 "화평교회" 김용환 목사님, 선교담당, 다락방 장로님, 온 성도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올 해는, 저희가 헝가리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1년, 그때 저희 부부는 33살, 34살 이었는데, 마음 속으로 되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후일을 웃으며!"(잠언 31:25) 훗날에 웃자! 나중에 웃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날에 웃을 수 있도록 살자! 사실 30년 동안에 힘든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연단하시며, 저희를 검증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국에서 주인처럼>(두란노),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규장)<네 인생의 한 쿼터>(예영커뮤니케이션), (나도 존중받고 싶다)>(두란노) 네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일인 오늘도,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에도, 주님 앞에서 저희가 웃을 수 있도록, 계속 새깁니다. 후일을 웃으며! 현재 저희가 웃을 수 있는 바탕은, 크게 네 가지로, 말씀과 기도, 성도(가족도 성도), 루틴사역입니다.

1)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시편 119:92)
 -헝가리어 성경 필사: 지난 10월부터 신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오늘 '요한 1서' 4장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에 제약과 제한이 있어서 오히려, 헝가리어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매일 세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각자, 오전 11시에는 헝가리어로,

저녁에는 모국어로... -매일 동네 한바퀴 '걸으며 기도하기'(Walking Prayer)! 4km 며, 1 시간 정도 걸립니다.

2)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시편 16:3)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녀와 부모, 형제도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으니, 헝가리 땅, 한국 땅,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세상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지요. 한분한분 생각할 때, 감동-감사-감격이 있습니다.

-저희 "Só Világosság(소금과 빛 개혁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주일예배와 급식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리이요쉬(신디사이저, 싱어), 엘리(클라리넷), 신희선(피아노), 로베르트(간편 드럼, 북)

3) "반복을 성실히 할 때, 행복이 온다." 는 말이 있지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로마서 12:8) -부다페스트 남부역, '거리의 교회'는, 수요일, 현재는

예배당 밖에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에서 봉쇄령을 해제하면, 다시 남부역으로 나가

예배와 급식을 할 것입니다.

4) "어린이는 내일의 지도자가 아니다. 오늘 오후의 지도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마태복음 19:14) 비록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다루기가 무척 힘든 시대 이지만,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지난 2 월 21 일,

주일학교의, 다섯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주의 일꾼,

충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다섯 가정: 아미, 메르찌/ 언지/ 키쉬 아미/

알렉스, 산도르, 샬론/ 요지, 멜리사, 다비드 -요셉 아틸라 고아원(보육원)의 아이들: 키아라, 케빈,

비앙카 -교사 자녀와 그외 아이들: 에녹, 마차쉬/ 롤란드, 에브린, 케빈 2

-섬기는 자들: 피테르 전도사, 원선미, 최하은, 피로쉬커, 로베르트 선생, 저희 부부

새 봄이 왔습니다. 계절 중에, 새롭다는 새 자를 붙일 수 있는 시기, 새 봄!

영어로 '행진(March)' 이지요. 매일 루틴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믿음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 선교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헌금의 미션!'을 부족한 저희에게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과분하고, 황송하며, 마음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함과 은혜 앞에...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태복음 24:45)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jestic God! 헝가리 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말레이시아 이경근 선교사님, 2021년 봄

말레이시아에서는 레이몬드 코 목사가 선교사역중 납치 된지 2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교회가 계속 말레이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만 말레이 이슬람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이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에서 복음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법으로 금해져 있는 형편이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음을 알고 이 땅의 사역자들이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 땅에도 선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이 꽃 피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랑아슬리 원주민 들은 산속밀림이나 강가 같은 오지에서 작은 부족단위로 살아갑니다. 이 종족들이 복음화 되도록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포스라야 교회 학생들 8명을 처음으로 도시로 보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 합숙하며 공부하는 것이라 여러가지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이겨내어 이 마을에 큰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원주민 마을을 떠나 아이들이 처음으로 에어컨을 경험해보는 아이들 모두 감기와 두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을 떠나 보내고 난 뒤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포스라야 원주민 교회 아이들과 교인

원주민 주앙 마을에 원주민개척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몇 안 되는 가정이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믿음 위에 조금씩 자라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마을들은 대개 이슬람과 힌두교 배경을 가진 곳들이라 복음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아주 연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이곳에서도 찬송이 있고 기도할 수 있기에 언젠가는 복음이 꽃필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시 이슬람 동네 인 빠당 슬라이에 새로 교회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 동네는 모두가 이슬람들이라 금요일 날이 공휴일입니다. 주일이면 아이들도 학교를 가고 어른들은 모두 일터로 출근합니다, 하여 부득이 금요일 예배를 시작 하였습니다. 아직은 몇 명이 출석하는 작은 모임이지만 한 두 생명이 복음을 영접하기 어려운 곳이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1,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도 복음이 전거 될 수 있도록
- 2, 포스라야. 주앙교회등 원주민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 3, 포스라야 원주민 교회 미래를 위하여 이 교회 학생들 8명을 처음으로 수도인 쿠알라 룸푸르 나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잘 적응하여 이겨 낼 수 있도록
4. 빠당 슬라이에 개척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5. 군에 있는 아들과 장성한 두 아들의 결혼을 위하여
6. kpm 선교사 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2020년 2월 3일 말레이시아에서 이 경근선교사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김앤디 선교사님, 2021년 봄

Dear Rev. Kim: I am so embarrassed, I don't know what to say. Please forgive me for not sending in a video for this very important conference. I know it takes a lot of work to prepare for such events and I am sorry I was delinquent. Please, know that it was a bad oversight of mine. When I did receive your reminder email in English I should have taken care of it right away. Please, explain to your congregation that I am very, very grateful for their prayers and I am very sorry to disappoint anyone with my absence. I ask for everyone's forgiveness. **Please if you could continue to pray for us:**

1) We have not grown much in membership and our focus this spring will be to increase our numbers and hold membership classes.

2) Pray for a couple that has been living together for over 10 years. They agreed to get married and we are very happy about their recent commitment to the Lord and the church. We have too many single parents and folks co-habiting without getting married.

3) Pray for Elder Mario whose daughter died on New Year's Day under very tragic circumstances. He has been wrestling spiritually and went into severe depression but has come out of that now and is getting better. He is our 'Hallelujah Man' who has always encouraged others including myself.

4) Pray for Vocatio's School Renovation Project. We are in an ideal location and want to build the second floor to have adequate classroom space. The project costs too much as we are not used to raising bigger monies like that (\$500-700K). We can only pray.

5) Tonight at 6pm we have our First Monday Prayer for Urban Education meeting. We have been praying monthly since March 2013. Feel free to join our prayer time on zoom.

6) Pray for our cafe which re-opened last Friday (9-1pm). It is for ministry purposes but it has been a great way to meet and pray for our neighbors.

7) Our youngest Margaret is awaiting college decisions. Pray for her to have peace and not value or judge her (Korean) self according to educational levels. Pray for our oldest Karen who is in her last year and will be graduating in May. She is under much stress to finish a big research project.

8) Pray for development of church leadership. We pray for new leadership and for Elder Mario to pursue theological studies to become an ordained minister. Thank you for praying.

친애하는 김 목사님께: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컨퍼런스를 위해 영상을 보내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역을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영어로 미리 알림 이메일을 받았을 때에 제가 곧바로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부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고, 저의 부재로 인하여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이 기도해 주세요.

- 1) 우리는 회원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번 봄에는 숫자를 늘리고 회원 수업을 개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 2)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과 교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 3)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서 새해 첫날 딸이 죽은 마리오 장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지만 지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온 우리의 '할렐루야 맨'입니다.
- 4) 보카치오 학교 보수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적당한 교실 공간을 갖추기 위해서 2층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큰 돈을 모금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 5) 오늘 밤 6시에 도시 교육을 위한 첫 번째 월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2013년 3월부터 매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참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 지난 금요일(9-1pm)에 다시 문을 연 카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역의 목적이 있지만 이웃을 만나고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 7) 우리의 막내 딸 마가렛은 대학 진학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녀 카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올해 5월에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큰 연구 프로젝트를 완성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8) 교회 지도력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새로운 지도력과 마리오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니카라과 정석훈 선교사님, 2021년 봄

안녕하셨어요? 화평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환 목사님

참 힘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니카라과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주심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11 월 기도부탁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8 미터 2 층 높이까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었습니다. 아직 건물 벽이나, 2 층으로 나누기 위한 바닥도 없고, 아직 흙바닥이지만, 비와 땀별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월 2 일부터 오전에는 노숙자와 가난한 이들의 목욕과 빨래, 음식 나눔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루 하루 참 좋은 시간을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후에는 학교 안가고, 마차를 끄는 아이들, 행상하는 아이들이 씻고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되는대로 2 차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어려워진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기 위하여. B 급 옷을 구입해서 빨래하고 수선해서 아내와 시장 허름한 가게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옷을 받아서 길에 나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1. 아침마다 교회에서 이들의 목욕을 돕고, 음식 만들고,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하는 일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시장 일과 교회를 섬기는 저와 아내 아나와 하루 종일 시장에 있는 딸 주희, 그리고 이곳 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아들 승호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2. 음식을 준비하는데, 빨래하고 목욕하는데 비누 등과 그리고 몸살약, 연고, 성병 마이신 같은 약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
3. 1 층에 아이들과 아픈 이들을 위한 공간과 교실들, 그리고 2 층에 예배실을 위한 2 차 공사를 위해서,
4. 지금은 땅만 정리해둔 아이들 장소에 놀이터와, 공부할 준비가 조금씩 갖춰지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 흠바닥인 교회 바닥이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부탁 드립니다.
5. 이들이 말씀 안에서 일어서고, 새롭게 일하고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업들이 교회 안에서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화평 교회 모든 성도님들...항상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니카라과에서 정석훈 선교사였습니다.

